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커버스토리
스리랑카

2019년 여름 제65권 2호

테러와 핍박으로 고통받는
스리랑카에 성경을 보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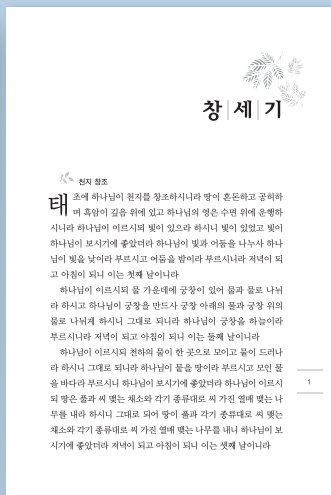
(재)대한성서공회

2019
신·간·소·개
NEW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나의 사랑하는 책 시리즈] 전 5권 출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1 구약 율법서

삶의 길잡이를 찾아서
창세기 - 신명기

2 구약 역사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
여호수아 - 에스더

3 구약 시가서

탄식에서 찬송으로
욥기 - 아가

4 구약 예언서

새 날을 바라보며
이사야 - 말라기

5 신약전서

예수님과 함께
마태복음 - 요한계시록

인생에서 가장 가치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순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성경을 선물해주세요.

- ✓ 장·표지를 생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묵상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 ✓ 신학적인 방법에 따라 구약 4권, 신약 1권의 단행본으로 나누어 편리합니다.
- ✓ 각 권의 안내서는 성경을 한층 더 넓고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판매가 | 권당 8,500원



성서한국

2019 여름 제65권 2호

02 포토에세이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04 2019 상반기 성서사업 보고

06 커버스토리

테러와 핍박으로 고통받는 스리랑카에 성경을 보내주세요

10 2019 해외성서 기증 현황

여러분의 후원으로 64개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12 성경을 받은 사람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14 말씀을 만나다

성경 속 여행

16 성서공회 운동을 위한 기도

아프리카 지역을 위한 기도

18 나의 삶을 바꾼 말씀

특수병원 성경 반포 이야기 - 김달현 목사

20 후원 이야기

23 대한성서공회 소식

131회 정기이사회,
2018년 성서번역 및 반포현황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회원국으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익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 소 : 본사 (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출판센터 (10844)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열지로 344번길 110
반포센터/홍보진흥본부(모금, 홍보)
(1708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197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부담)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6~7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19년 6월 30일
- 인쇄인·인쇄처·편집 : (주)타라그래픽스
- http://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본지는 도서접지 윤리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품)



에티오피아 부족어인 하디아어 성경번역을 맡고 있는 베레트 로리스스와 성경 번역원고들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베레트 로리스소는 하디아어
성경번역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모국어 신약번역에 12년이 걸렸고,
이제 17년만에 구약번역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다키초 마을 사람들은 번역된
시편 28편을 읽으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침묵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모국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움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여호와를 찬송함이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 시편 28편 6절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보충 자료들을 디지털 영상으로 제작하여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권익현 사장



본 공회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보충 자료들을 디지털 영상으로 제작하여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디지털 성서 사업부를 신설하고 로스기념관(용인 반포센터) 내에 영상 촬영과 편집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번역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안내로부터 시작하여,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작·서비스할 예정입니다.

국내 성서 보급

금년 상반기에는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서 42,760부가 증가한 334,790부의 성경을 보급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개역개정판 성경은 278,927부가 보급되어, 지금까지 본 공회를 통해서 10,174,697부가 보급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내 성경 출판사들이 본 공회로부터 개

역개정판 본문 사용에 대한 저작권 허락을 받아 출판한 주석 성경 12,526,985부를 포함하면, 개역개정판 성경은 총 2천 2백만 부가 넘게 보급되었습니다.

해외 성서 보급

금년 상반기에는 76개 나라에 107개 언어로, 지난해 동기간과 비슷한 규모인 1,951,240부의 성서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본 공회 출판 관련 팀이 파주 지역으로 이전하여 출판팀과 (주)바이블코리아 상호간의 업무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서 제작 비용 절감과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매성서공회들로부터 성경 조판을 요청받아, 아치 성경(가데말라)을 비롯하여 총 7종의 성경을 무상으로 조판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미자립성서공회

성서 지원 사업 및 모금 사업

본 공회에서는 세계 성서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 지원하는 재정적 인적 지원과는 별도로, 성경 제작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성서공회들에 성경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기증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총 28개 나라에 132,173부의 성서를 그 나라의 언어로 제작하여 기증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교회와 찬성회원들께서 해외 성경 보내기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헌금을 보내주셔서, 지난해 동기간보다 약 3억 3천 9백여만 원이 증가한 21억 7천여만 원이 답지하였습니다. 이번 헌금 기탁자 중에 한 후원자님은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에스와티니(Kingdom of eSwatini, 구 스와질랜드) 어린이들을 위해서 1억 4천만 원을 헌금하였습니다. 에스와티니의 인구는 약 1백 4십만 명에 불과하지만 세계에서 에이즈 감염률(약 30%)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이 헌금은 부모가 에이즈로 인하여 사망했거나 그 고통을 지켜보아야 하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성경에 기초한 교육을 하기 위한 '어린이 선교 센터' 건립을 위해서 쓰일 것입니다. 전 세계로 성경을 보내는 운동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참여해 주시는 교회와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한글 성경전서〉(가칭) 번역

2012년 12월,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을 위한 〈새한글 성경전서〉(가칭)의 번역을 시작한 이래, 금년 4월 말 기준으로 기초번역이 완료되었으며, 번역 검토는 94%, 문장 검토는 72%, 기초번역자들의 재검토는 25%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재검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분과별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그 결과를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로 성경 본문 관련 자료들을 볼 수 있도록 해설, 그림, 사진, 영상 자료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대한성서공회 제131회 정기이사회에서 보고한 것을 정리 요약한 것입니다.

한눈으로 보는 2019 상반기 성서사업



국내성서 보급

334,790부



해외성서 보급

76개 나라에 107개 언어로 1,951,240부



해외성서 기증

28개 나라에
132,173부



후원금액

21억 7천여만 원

테러와 핍박으로 고통받는 스리랑카에 성경을 보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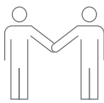
위치

인도 남동부 섬



인구

2,257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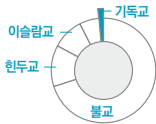
언어

싱할라어, 타밀어, 영어



종교

불교(70.2%), 힌두교(12.6%),
이슬람교(9.7%), 가톨릭 (6.1%),
기독교 (1.3%)



▲ 테러가 발생한 스리랑카 네곰보 지역의 성 세바스찬 교회 (출처: 성 세바스찬 교회)



▲ 테러로 남편과 자녀를 잃은 스리랑카 여성(출처:뉴욕타임즈)

지난 4월 21일 부활절 주일,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와 바티칼로아, 그리고 네곰보 지역에 있는 교회와 호텔에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오전 8시 30분에서 9시 30분 사이에 일어난 이번 연쇄 테러로 250여 명이 사망하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 인해 발생한 이 테러로 성 안토니오 교회, 시온교회, 성 세바스찬 교회 등이 피해를 입었으며,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던 성도들과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의 가족과 친척, 교우를 잃은 수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테러로 인해 스리랑카 정부는 통행 금지령을 내리고 소셜미디어를 통제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오히려 종교 간의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 식민 지배와 스리랑카 내부의 민족 간, 종교 간의 갈등

스리랑카의 주를 이루는 종족은 싱할라족(75%)과 카밀족(15%)입니다. 16세기부터 440년에 걸쳐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에 식민 지배를 당했던 스리랑카는 1948년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싱할라족과 카밀족 간의 갈등으로 1983년부터 27년간 내전

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스리랑카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 불교와 힌두교, 이슬람교 간의 갈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구사회로부터 전해진 종교로 여겨졌던 기독교는 모두의 탄압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어린이들을 위해 부활절 연극을 선보인 스리랑카성서교회 직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등과 핍박을 이기는 스리랑카성서교회 사역

종족 간 계층 간 이해와 화합이 절실한 스리랑카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에서 스리랑카 성서교회는 먼저 교회 지도자들이 더욱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스터디성경과 자료들을 제공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성경 관련 이벤트와 전사회를 열어 스리랑카 다음 세대가 성경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삶에 적용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수도인 콜롬보를 중심으로 폭력과 학대, 정신적인 핍박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을 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상담자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교회, 신학교, 기관 등에 파송하여 말씀을 통해 영적인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연령별, 대상별로 따로 소그룹으로 진행하며 싱할라어, 타밀어, 영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6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 성경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어린이 회복프로그램의 참여자와 자원봉사자들

상처 입은 스리랑카 성도와 교회를 위로할 하나님의 말씀

스리랑카성서공회는 이번 테러를 통해 핍박,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 어린이, 청소년, 리더십과 교회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위의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테러가 난 이후에도 가족을 잃고 실의에 빠져있거나 테러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연약

한 신앙으로 흔들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갈등 속에서도 이웃을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과 교회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스리랑카성서공회에 제공될 성경과 스리랑카성서공회의 사역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후원문의

스리랑카에 전달하는 컨테이너 한 대에는 10,000권의 성경을 채울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헌금하시면 20명의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에 보내는 컨테이너에 성경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080-374-3061(수신자 부담)



여러분의 후원으로 64개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붉은 글씨 - 지금까지 성경이 발송된 국가 (2019.5.24 기준)



아프리카 지역
21개국

가나, 기니 비사우, 나미비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부룬디, 부르키나 파소, 상투메, 앙
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유럽 중동 지역
16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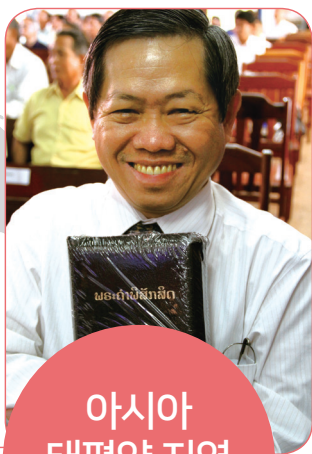
그리스, 러시아, 레바논,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시리아,
아랍-이스라엘, 알바니아, 알제리,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팔레스타인





미주 지역 16개국

과테말라,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볼리비아,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성서위원회,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푸에르토리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국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캄보디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콩코에 살았던 조이스 자닌카는 제2차 콩고전쟁으로 자녀 7명과 남편을 잃었습니다. 슬픔에 빠진 그녀는 더 이상 그 곳에 머무를 수 없어서 고향을 떠나 우간다로 피난을 갔습니다. 우간다 나키발레 난민촌으로 넘어온 조이스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 조이스 자닌카

성경을 읽고 마음의 위로와 새 힘을 얻은 그녀는 회복 프로그램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변의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비록 자신의 자녀들은 모두 잃었지만 이들을 돌보며 새로운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불우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마치 우리 자녀처럼 돌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조이스는 우연히 길에서 만난 젊은 여성과 그녀의 자녀들을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여성은 자녀가 3명 있었는데 강간을 당한 후 에이즈에 감염되어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조이스는 이들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며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습니다.

“성경기반 회복 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슬퍼하지 말라고 가르쳐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저를 보살펴주시고, 제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에도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성경기반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한 나키발레 난민촌 사람들



▲ 조이스와 그녀가 돌보는 여성과 자녀들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 여성과 자녀의 건강이 좋아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조이스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보며 더는 자신의 슬픈 과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밝은 미래를 위해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 오랜 시간 동안 무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



QR코드를 통해 조이스 자넌카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브라함의 여정 (요제프 몰나르, 1850년)



성경 속 여행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 12:1-2)

75세의 아브라함(아브람이라고도 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아내와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야곱

야곱은 아버지를 숙여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제안으로 브엘세바에 있는 집을 떠나 하란에 있는 삼촌의 집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가는 길에 꿈을 꾸었는데, 꿈에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창 28:10-15).

다윗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자, 사울 왕은 곧 다윗을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너무 인기가 많다고 생각해서 그를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사울과 병사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항상 그들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삼상 18:6-30).



▲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구에르치노, 1646년)



▲ 애굽으로 피신하다 (베네딕트 수난화의 대가, 1465년경)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포로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지낸 후에 드디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서기관인 에스라는 성전에 쓸 금 4톤, 은 25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스 8:24-30).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는 성전 재건을 돕기보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느 2:1-6:19).

마리아, 요셉, 예수님

로마 총독은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눅 2:1-7). 그러나 헤롯 왕이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요셉 가족은 애굽(이집트)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들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지냈고 그 후, 다시 갈릴리 나사렛 마을로 돌아왔습니다(마 2:13-23).

예수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길에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비유를 들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70명의 제자를 보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게 하셨습니다(눅 9:51-19:28). 🌐

출처 : 『재미있고 놀라운 성경의 세계』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7), 34-35; *The Amazing Bible Factbook for kids* (American Bible Society, 2008).

아프리카 지역을 위한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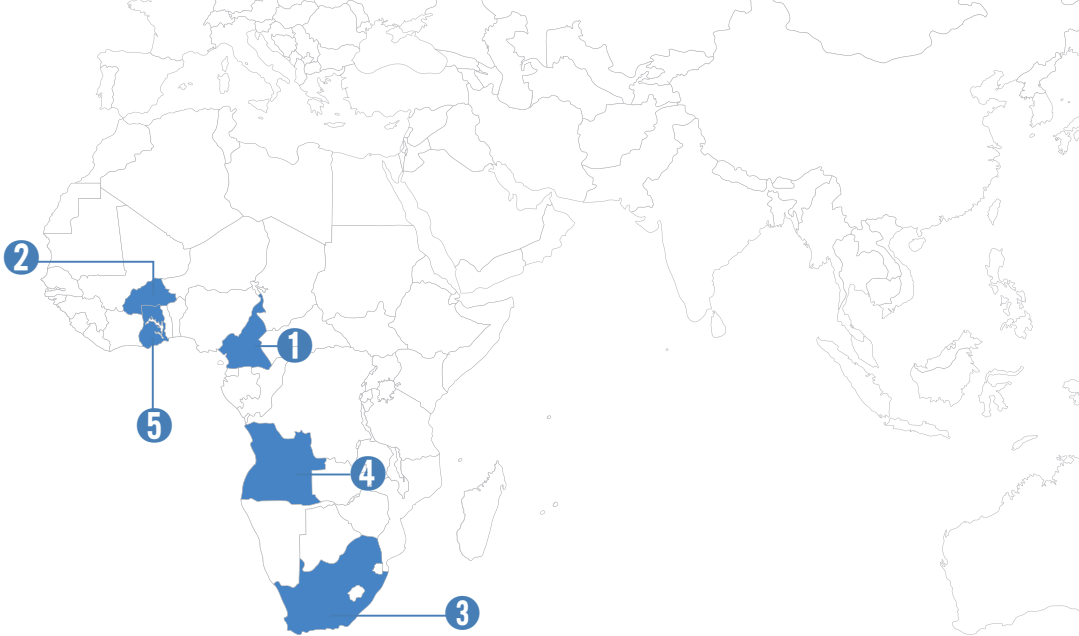


① 카메룬

진행되는 국내 성서 사역에 복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이 와 달기를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지역성서공회가 섬기는 일들을 통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사람들의 필요에 맞는 성경 번역과 형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② 부르키나 파소

트라우마 치료 프로젝트를 무사히 시작하고, 또 원활하게 진행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는 인구의 60%가 무슬림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부르키나 파소에서 3년동안 지속되고 있는 테러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테러가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남아프리카공화국

성서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후원자님들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청각 장애인용 영어성경이 올해 출판될 예정입니다. 출판된 성경이 잘 보급되어 청각장애인 독자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앙골라

지나온 앙골라성서공회의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할 사역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는 귀한 성경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와 그 부지를 얻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의 관계, 행정, 재정, 번역, 보급과 관련하여 향후 5년간 정한 목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기를 기도 부탁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번역가와 그의 가족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 많은 민족어 번역이 이루어져, 모든 앙골라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⑤ 가나

보노 성경 번역 프로젝트와 진행 중인 다른 민족어 성경 번역을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청소년들이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 부탁 드립니다. 또한 본 성서공회가 다른 지역으로 활동을 확장하게 됨에 따라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수병원 성경 반포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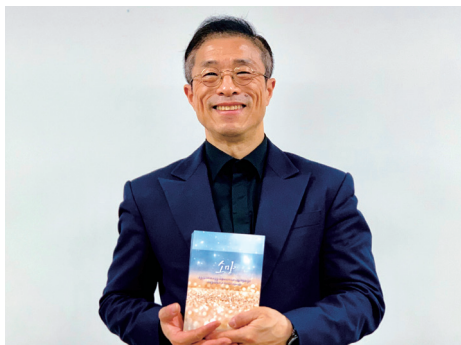
김달현 목사

특수병원 사역을 시작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신학대학원 재학 중, 우연히 정신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우들을 위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중독 등 다양한 질환으로 장기격리입원 치료 중인 환우들이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술때문에 제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큰 고통과 좌절을 겪었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 자리에 부르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특수병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 느끼실 때는 언제이신가요?

삶의 바닥을 경험하며 무기력하고 소망 없는 그들에게 다가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주중에 주



▲ 특수병원 사역을 하는 청담아름다운 선교회 김달현 목사

일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환우들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장기입원 환우들이기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자가 소유할 수 있도록 성경을 선물하면 애정을 갖고 성경을 대할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침 대한성서공회에서 기존의 성경책과 다른 형태의 성경책을 소개받았는데 **현재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그 성경책은 마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만들어 주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된 자체나 나누고 싶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한번은 길을 가는데 어떤 젊은 여성이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분이 누군지 잘 기억이 나질 않아 잠시 쳐다보았더니 전에 입원하여 함께 예배 드리던



▲ 특수병원 사역을 진행하는 구로다나병원 입구(왼쪽)와 전경(오른쪽)

자매였습니다. 자신이 입원치료를 받았을 때
에 예배와 성경이 너무나 큰 힘이 되었다며 감
사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먼저 아는 척하기 쉽
지 않았을 텐데, 전혀 개의치 않고 고마움을
표하고 돌아서는 그 분의 뒷모습이 아직도 생
생합니다.

삶을 붙드는 말씀 한 구절과 그 이유를 나눠주실 수 있나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특수병원
환우들이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외면하며 고
통 가운데 있지만 이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
키는 데에 미약하나마 쓰임 받고 싶습니다. 먼
저 구원받은 자로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악

한 길을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
여 주시고 그 땅을 고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나 부탁할 기도제목이 있으신가요?

이 땅에는 아직도 마음과 정신이 피폐하
여 무기력과 절망 가운데 삶을 포기한 많은 형
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고통받고 외면 당해 좌
절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기도해 주시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

'성경이 해답입니다'

영안교회

가나 트위 아잔테어 10,000부 성경 기증

3월 8일, 영안교회(양병희 목사)의 후원으로 가나에 트위 아잔테어 성경 10,000부를 기증하였습니다. 가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사회의 약자인 여성과 아이들이 고통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당장의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가나성서공회에 기증된 성경은 고통 받는 여성과 희망을 잃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증예식에서 양병희牧사는 “종교 개혁

자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듯이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성경이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경을 보내는 사역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경을 받게 될 가나의 영혼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전하며 성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증된 성경을 통해 가나의 청소년들과 여성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내적 상처 치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 상처를 치유 받고 다시 꿈을 찾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

▼ 트위 아잔테어 성경을 전달하는
대한성서공회 권익현 사장(좌측)과 양병희 목사(우측)



▼ 성경을 컨테이너에 싣기 전 가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양병희 목사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도록'

선한목자교회



▲ 기증예식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 성경을 보내는 컨테이너 앞에서 선한목자교회 성도들

콩고민주공화국 불어성경 16,791부 기증

5월 8일, 선한목자교회(유기성 목사)의 후원으로 콩고민주공화국에 불어성경 16,791부를 기증하였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오랜 기간 내전을 겪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쟁을 겪으며 많은 사람들이 전쟁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간절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성경을 구매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목회자들조차 자신만의 성경책이 없어 다른 목회자들과 성경을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기증예식을 통해 유기성牧사는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는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였던 성경적 신앙이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받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그들 속에도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전하며 콩고민주공화국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기증된 성경은 성경이 없는 목회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보급되며 전쟁의 상처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성경 기증으로 성경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교회 지도자들과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성경으로 공부합니다'

한-라오어 대조성경 1,200부 보급

5월 9일, 대한성서공회 한 익명의 후원회
원 기증으로 한-라오어 대조성경 1,200부를
기증하였습니다. 대조성경은 라오스와 국내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라오스에서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을 통해 한글을 접하게 함으로써 말씀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
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60%가 불교인
라오스는 1990년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인
정하였으나 외국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은 금지
되어, 오직 현지인 목사와 전도사들에 의한 전
도활동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에서 라오스 현지 선교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한-라오어 대조성경이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정한 치유, 말씀'

부산의료원 원목실

아이티 불어성경 1,950부 기증

3월 22일, 부산의료원 원목실(박현수 목사)
의 후원으로 불어성경 1,950부를 아이티에
기증하였습니다. 아이티 2010년 발생한 대지
진을 시작으로 허리케인과 홍수 등 각종 자연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지진으로
무너진 삶의 터전을 보고 상실한 사람들이 미
처 재건을 진행하기도 전에 허리케인과 홍수
가 일어나 아이티 사람들에게 더욱 깊은 절망

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어떠
한 상황 가운데서도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을 아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과 생활기반을 잃고 가난과 각종 질병과 싸우
고 있는 아이티인들을 영적으로 돕기 위해서
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실합니다. 이번에 기증
되는 성경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아이티 사람들의 지쳐있는 마음이 치유
받기를 기대합니다. 🌐

131회 정기이사회



▲ 제131회 정기이사회 전경

대한성서공회 제131회 정기이사회가 2019년 5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서초 성서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부 기도회에서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마이클 페로가 내한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상, 우리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2부 회무처리에서는 신 이사 중 교단대표

로 이현식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장만희 사관(구세군대한본영), 김 웅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신상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가 소개되고, 찬성회원 대표로 최규완 장로, 김현배 목사, 손인웅 목사, 정하봉 목사가, 감사로는 정명철 목사, 송영훈 장로가 소개되었다. 이어서 권익현 사장의 사장보고와 사업보고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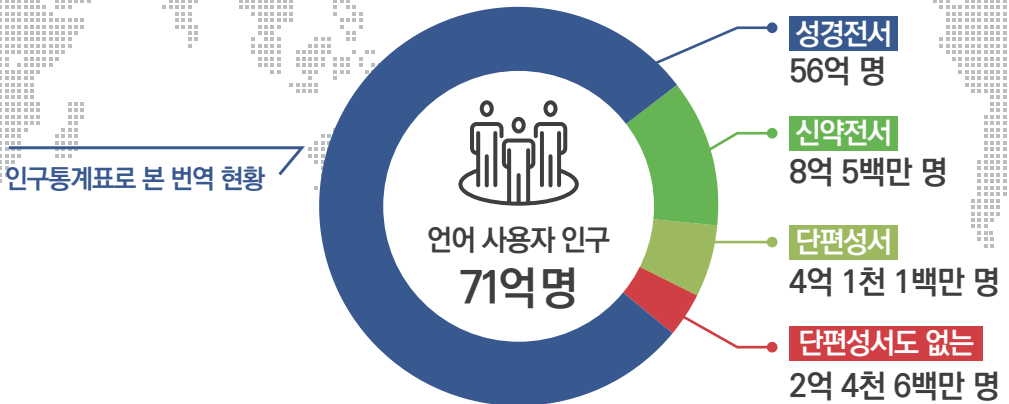


▲ 신임 이사장 김동권 목사

안건으로는 신 임원으로 이사장에 김동권 목사, 부이사장에 정하봉 목사, 서기에 양병희 목사, 회계에 이선균 목사가 선임되었고, 실행 위원에는 김현배 목사, 김순권 목사, 이정익 목사, 손인웅 목사, 김경원 목사, 이용호 목사가 선임되었다. 🌐

2018년 성서 번역 현황

(출처: 2018년 세계 성서 번역 현황 보고서,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2018년 세계 성서 번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7,350개의 언어 가운데 692개 언어가 성경전서로 번역되었다고 밝혔다. 전 세계 56억 명이 모국어로 된 성경전서를 갖게 되었지만 아직도 약 15억 명의 사람들은 모국어로 된 성경전서가 없다.

신약전서는 8억 5백만 명이 사용하는 1,547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단편성서들은 4억 1,100만 명이 사용하는 1,123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어떠한 성서로도 번역되지 않은 언어의 수는 3,988개로, 약 2억 4천 6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성경을 기다리고 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2018년부터 약 6억 명의 사람들이 모국어로 성서를 새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20년 번역 프로젝트 여정을 시작하였다. 성서공회들이 이에 필요한 자원 지원을 받는다면 2038년까지 1,200개의 번역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총무 마이클 페로는 “우리가 향후 20년을 바라보고 추진하는 이 비전과 선교 전략은 수대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나눔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세계 교회와 협력 기관들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긴밀히 일함으로써 모든 이들이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이어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

● 후원회원 정보

회원명 _____
교회명 / 직분 _____
휴대전화 _____
집 전화 _____
주소 _____

☐ 우편물거부 ☐ 소식지 이메일 신청

이메일 _____

● 후원금액

☐ 매월 _____ 원 (성경 _____ 권)
☐ 매월 10만원 (성경 20권)
☐ 매월 5만원 (성경 10권)
☐ 매월 1만원 (성경 2권)

● 후원방법(자동이체)

은행명 _____ (휴대전화번호로 된 계좌 또는 카카오�뱅크 계좌 등록)
계좌번호 _____
예금주 _____
휴대전화(예금주) _____
생년월일(주민등록증 상) / 사업자등록번호(법인) _____

이체일 ☐ 5일 ☐ 15일 ☐ 25일

(잔고 부족 등의 이유로 미출금시 2회에 한해 재출금)

신청인(예금주)은 대한성서공회의 선교사역에 후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효성에프엠에스(주)의 CMS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뒷면 참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자동이체 신청을 위해 동의함에 꼭 체크해주세요!)

신청인 _____ (인/서명)

예금주 _____ (인/서명)

년 월 일

매월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번호에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정보만 수집합니다.
- 자동이체 등록시, 효성에프엠에스(전자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와 금융기관에서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예금주[납부자]의 연락처 확인 불가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3자): 효성에프엠에스(주), 금융기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efnc.c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팩스

(02-2103-8896)로
전송해 주세요.



우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197,
대한성서공회
홍보진흥본부)으로
발송해 주세요.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성서공회**
입력하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070-01-0340-570
우리은행 1005-702-311166
수협은행 033-01-085327
KEB 하나은행 630-008603-501
(구,외환은행)

신한은행 140-009-909678
농협은행 355-0025-0990-53
우 체 국 011916-01-000076
KEB 하나은행 224-910049-47104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대한성서공회)

후원문의 Tel. 080-374-3061(수신자 부담)



여러분의 사랑으로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시면 발송비용을 절약하여 더 많은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성경은 엘리자베스의 삶을 회복시켰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던 엘리자베스는
어느날 들이닥친 괴한들이 휘두른 칼에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간신히 구출되어 우간다로 피신했지만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분노와 상처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읽기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을 용서합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지금도 성경을 통해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내주세요.**



링크를 통해
엘리자베스의 간증에 담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엘리자베스 루칼루 -

